

주수상이 한국에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다

2022년 8월 31일 미디어 문의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한국에 대한 임무를 성공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알버타를 여러 신흥 경제 부문의 투자 대상지로 홍보했습니다.

케니 주수상과 알버타 대표단은 3일 동안, 한국 원자력 연구원,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에이취투코리아 (H2KOREA), 포스코 (Posco),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자동차와 같이,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이 회의에서 케니 주수상은 다음을 포함한 알버타의 여러 부문에 대한 잠재적인 대규모 투자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 철강 및 2차 전지를 포함한 제조업
- 대규모 정보 처리 센터를 포함한 정보 기술
- 수소 프로젝트
- 소형 모듈형 원자로
-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 리튬 및 희토류 광물 생산
- 액화 천연 가스
- 관광

“알버타에게 있어 한국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3일 동안 저는 알버타의 경제적 미래, 특히 에너지와 기술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직접 알 수 있어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알버타가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가까운 미래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투자를 우리 주에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

간단한 정보

- 한국은 알버타의 5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 2021년 알버타는 약 6억 6,82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한국에 수출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육류 (주로 쇠고기, 1억 4,000만 달러), 니켈 (1억 2,270만 달러), 목재 펄프 (1억 540만 달러), 에너지 (주로 석탄, 9,850만 달러), 지방 및 기름 (주로 카놀라유, 6,640만 달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같은 해 알버타는 약 2억 93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 (5,030만 달러), 전기 기계 (4,600만 달러), 플라스틱 (3,170만 달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알버타는 무역, 투자 및 양자 협력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하고 상호 유익이 되는 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버타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미디어 문의

저스틴 브라팅가 (Justin Brattinga)

780-203-0177

주수상실, 언론 사무관